전남농업박물관, 설 연휴 '민속놀이 체험 풍성'

21~24일 제기차기·투호·연날리기 체험
전통 한복입기·복주머니 나눔 등 진행

전남농업박물관이 계묘년 설 연휴 첫날인 21일부터 나흘간 농경문화체험관 일원에서 '설 명절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풍성하게 진행한다.

민속놀이는 윷놀이를 비롯해 제기차기, 투호, 연날리기, 팽이치기, 승경도놀이, 굴렁쇠 굴리기, 고리걸기 등 다양한 놀이와 전통 한복 입어보기 등을 준비했다.

또 농경문화체험관에 소망지 걸개를 만들어 새해 소망을 한지에 적어 달아놓게 한 뒤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때 태워 날릴 계획이다.

박물관을 찾은 청소년과 어린이 200명에게 복주머니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농업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휴관없이 정상 개관한다. 체험행사 참가비는 무료다.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박물관 대표 누리집(http://www.jam.go.kr)에서 확인하거나 농업박물관(061-462-27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호 농업박물관장은 16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 친지와 함께 농업박물관을 방문해 잊혀가는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전남도립도서관 '책바다 서비스' 택배비 지원

이용 도민 3000원 지원… 책 읽는 문화 확산 기대

전남도립도서관이 타 도서관 보유 책을 대여하는 도민들을 위해 택비비 지원 시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전남도립도서관은 16일부터 책 읽는 문화 확산과 도서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책바다 서비스' 이용 도민에게 택배비 3000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책바다 서비스'는 지역 도서관 이용자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 전국 다른 도서관에서 보유한 책을 택배로 신청해 받아보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이용자가 택배비를 전액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1회 이용 택배비 5540원 중 절반 이상인 3000원을 도비로 지원해 이용자는 2540원만 부담하면 된다.

책바다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도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학 전남도립도서관장은 "도민이 원하는 책을 전국 어디에서나 대출 받아 읽도록 추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책바다 서비스는 전남 23개 공공도서관에서 실시 중인 가운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

/무안=박태언 기자

지리산역사문화관 '전통 민속 탈 만들기' 체험

어린이집 원아 대상 운영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이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전통 민속 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많은 전통 탈 중에서도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된 ▲양반탈 ▲호랑이탈 ▲각시탈 ▲토끼탈 ▲봉산탈을 만들어 탈마다 가진 재미난 특징을 배워보고, 직접 만든 탈을 쓰며 역사문화관 잔디 광장에서 '얼씨구 절씨구' 탈춤을 추어 보는 등 흥이 절로 나는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일부터 시작해서 오는 25일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리산역사문화관 관계자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민화그리기, 전통탈 만들기 등 계절별 절기에 맞춘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례=오광범 기자

땅끝마을 인송문학촌 '토문재' 창작 공간 입주 작가 모집

해남 땅끝마을에 있는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2023년 창작 공간에 입주할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시,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동화 등 문학 장르 외에도 음악, 미술, 사진 등 창작예술가들에게도 개방된다.

입주작가들의 고른 혜택을 위해 1년 단위 및 1개월과 2주 단위로 모집하고 있다. 1년 단위는 작가의 지속적인 집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간의 틀을 활용해 일반인들에게 전통한옥 체험방으로도 활용하고 있으며, 2주 단위 송정실의 경우는 2인 1실로 남녀 구분이 없이 작가 부부가족 및 동료 작가와 같이 작품을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창작의 공간이다.

입주작가에게는 시설 이용에 따른 일체의 관리비가 없으며 전액 무료다. 오는 27일까지 '인송문학촌토문재.com' 또는 이메일(insonpbd@hanmail.net)로 접수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인송문학촌 토문재는 전통 한옥으로 신축된 전국 유일의 복합문화공간이자 한국문학 창작의 산실로 작가들에게 쾌적한 공간으로 인기가 높다. 입주작가들이 마음 놓고 자연을 벗삼아 집필에만 몰입하게 될 레지던스 공간은 인송실 난초실 등 모두 7실이 있으며 인송정, 토문재 북카페, 회의실 및 다목적 세미나실과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신축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강진 청자공모전 최우수상에 정영미·박성미 작가

입상작 발표… 대상작 미선정, 총 24점 입상

최우수상에 정영미 작품.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제51회 강진청자축제 기획행사로 마련된 제22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을 발표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공모 주제를 "食(먹을 식)"으로 정하고 관련한 모든 청자 작품을 접수 받아 심사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문별 전문가 5인을 위촉해 예술성, 상품성, 독창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수상작에는 ▲최우수상 정영미 작가, 박성미 작가, ▲우수상 한세은 작가, 박병규 작가 작품이 선정됐다. 이 밖에 특선은 6점, 입선 14점을 포함해 총 24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아쉽게도 대상 작품은 선정하지 못했다.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청자축제 기간(2월 23일 ~ 3월 1일) 중 축제장 주무대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심사위원장인 안병국 교수(목원대학교)는 "주제를 부여하여 심사하다 보니 출품작 다양성의 한계가 존재했다"며, "주제에 따른 완성도와 상품성은 전체적으로 원만하였으나 독창성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아 대상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공모전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품하신 작가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청자 및 도예 발전을 위해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공모전을 개최한 강진군에 감사드린다"며 총괄 심사평을 전했다.

입상작품은 오는 2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2층 전시실에 전시된다.

/강진=한홍수 기자

"ACC서 나만의 무드등 만들어보세요"

청소년 대상 창제작 프로그램… 선착순 모집

청소년이 겨울 방학 동안 전당의 창·제작 스튜디오 곳곳을 둘러보며 다양한 창·제작 기술을 알아보고 문화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마련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전당의 창제작 기반 시설과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를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2월 1일과 8일 ACC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에서 진행한다. 참여자는 전당이 보유한 첨단 장비와 설비 등을 활용해 발광 다이오드(LED) 무드등을 만들며 작품 제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ACC 누리집(www.acc.go.kr)에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은 전액 무료이며 회당 선착순으로 20명을 모집한다.

한편 ACC는 이번 청소년 창작공동연수를 시작으로 올 한해 아시아문화박물관의 전시와 연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적인 진로 체험을 위한 예비전문인 프로그램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관람 안내 책자도 제작, 전당 소개와 함께 관람 예절 등을 안내해 성숙한 문화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옥 기자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 한달에 한번 그림책 작가와 만나요

매월 넷째주 토요일 '그림책학교' 운영

순천시립그림책도서관에서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부모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 작가를 만나는 '그림책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림책학교는 수강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그림책도서관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그림책과 친숙해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2017년부터 70여 명의 그림책 작가들이 함께했으며, 작년 한 해 259명의 부모와 아이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올해 그림책학교는 작가가 들려주는 그림책 속 비밀 이야기, 체험활동 등 작가와 참여자들이 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는 28일 김지영 작가(내마음 ㅅㅅㅎ)와 만남을 시작으로, 2월 이상옥(돌아갈 수 있을까), 3월 나무토끼(색을 파는 가게), 4월 경혜원(한입만), 5월 홍우리(나의 첫 심부름), 6월 안난초(콩 팬클럽), 7월 신나군(컵마을), 8월 정해영(가방에 뭐 있어?), 9월 이승원(경복궁), 10월 김희선(꿈을 굽는 빵집), 11월 국지승(있는 그대로가 좋아) 작가가 함께한다.

순천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매월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부모와 아이가 책과 가까워지고, 서로 소통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